

중국 '신노동자' 집단정체성 형성의 문화정치적 함의

-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김정수*

<目 次>

1. 프롤로그: “우리는 신 노동자입니다!”라는 선언
2. 이주노동(打工) 30년의 역사: ‘농민공’에서 ‘신 노동자’로
3. ‘신 노동자’: 새로운 노동자 집단정체성의 형성
 - 1) ‘신 노동자’, 호명의 정치학
 - 2) ‘신 노동자와 문화공동체 -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
4. ‘신 노동자’ 정체성의 의의 및 가능성

1. 프롤로그: “우리는 신 노동자입니다!”라는 선언

“우리는 농민공이 아니라, 신 노동자입니다!”

이 한 마디 외침은 중국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의 눈을 중국 ‘농민공’이라는 다소 낯선 사회학적 주제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 여름의 일이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학생들과 함께 베이징 6환 근방에 위치한 ‘농민공’ 집단거주지인 ‘피춘(皮村)’을 방문¹⁾했던 날이었다. 피춘 중심에 있는 ‘노동자의 집(工友之家)’과 그 안의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打工文化藝術博物館)’을 둘러보며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우리를 안내해 주던 사람(‘농민공’이자 활동가)에게서 갑자기 저 외침(농민공이 아니라 신 노동자라는 말)이 날아왔다. 직전에 우

* 송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교수

1) 당시 필자는 서울대 하계학생연수프로그램인 ‘SNU in Beijing’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농민공을 주제로 하는 학생들의 ‘현지탐방’ 조사 과정에 동행중이었다.

리는 중국 '농민공' 문제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던 중이었고, 그는 아마 우리들 질문에 넘쳐 나는 호의어린 무심함을 타박하는 것이었으리라. 솔직히 말하면, 활동가의 이 말로 필자는 머리를 세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고백하건대 '농민공'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적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으면서도 '농민공'이라는 말이 실제 당사자들에게 어떤 느낌과 무게로 다가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정의감을 가장한 타자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자책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또한 "우리는 '신 노동자'입니다!"라는 저 선언 역시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완전히 생소한 '신 노동자(新工人)'라는 용어가 주는 충격도 컸지만, 필자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말을 하던 사람의 당당하고 힘 있는 표정과 태도였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격랑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무기력'과 '우울'이 시대병(時代病)이 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던가. 중국에서 역시 '부자 2세(富二代)', '권력자 2세(權二代)' 등의 말로 대표되는 집단적 혐오와 그 이면의 무력감이 팽배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가. 또 자장커(賈樟柯) 감독의 『천주정(天注定)』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러지듯, 도시로 나온 '농민공' 샤오후이(小輝)는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또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그 어떤 출로를 찾을 수 없어 허공으로 몸을 날릴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필자는 피춘 활동가의 표정과 태도에서 말 그대로 불가사의를 느꼈다. 무엇이 그를 통상의 '농민공' 같지도, 또 21세기 현대인 같지도 않게 만들었을까? 그때부터였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필자에게는 지금 중국의 일각, 적어도 필자가 눈으로 확인한 바 피춘의 '농민공'들에게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중국 사회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일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인식하고 사고하려는 시도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농민공'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한다는 말은 시야를 '농민공'에만 한정한다는 말과 같지 않다. '농민공'의 문제는 물론 "자본주의 세계 공장의 형성 과정 속의 계급 관계, 도농 관계, 지역 분화의 산물"²⁾이다. 각종 '농민공' 문제들은

2) 汪晖, 「两种新穷人及其未来—阶级政治的衰落, 再形成與新穷人的尊严政治」, 『开放时代』, 2014년 第6期. (<http://www.opentimes.cn/bencandy.php?fid=378&aid=1849>)
왕후이 교수의 이 글은 이후 박자영 교수의 번역을 거쳐 「두 종류의 신빈민과 그들의 미래:

'자본주의 세계 공장의 형성 과정', 즉 글로벌 노동 분업이라는 조건 위에서 생겨난 것이다. 많은 논자들이 '개혁개방 시기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임하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주로 생산과 제조의 역할을 담당했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엽가의 노동력과 막대한 내수시장은 분명히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을 때, 이러한 중국의 우위 조건은 분명 '농민공' 대군에 빛진 바 크다. 또한 개혁개방 시기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본래 생산의 가치사슬의 중류가 가지는 문제, 즉 생산단계에 할당된 저부가가치라는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에 내재해 있던 각종 격차의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이 모든 가치와 이익의 불균형 문제는 온전히 '농민공'에게로 전가되었다. 이처럼,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글로벌 노동 분업이라는 조건, 중국 내의 각종 격차 등은 '농민공' 문제를 발생시키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진행 중인(making) 과정은 여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활동의 주체에 의해서도 좌우'³⁾ 된다는 E. P. 톰슨의 통찰을 곱씹어 볼 때, '농민공'의 문제는 그 여건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주체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농민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농민공'에 관한 사회적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었으며, 사회학을 비롯하여 인류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문화연구 등 각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농민공' 자신의 능동성과 주동성에 중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집단으로서의 '농민공'의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의식과 행동이 가시화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농민공'의 능동적인 변화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홍콩계 학자 판이(潘毅, Pun Ngai)가 쓴 『메이드 인 차이나 Made in China: Women Factory Workers in a Global Workplace』(2005)와 미국 미시건 대학교 리징권(李靜君, Qing Kwan Lee) 교수가 쓴 『법률에 대한 저항 Against the Law: Labor Protests in China's Rustbelt and Sunbel』(2007),

계급 정치의 쇠락과 재형성, 신빈민의 존엄의 정치'이란 제목으로 『문화과학』(2015년 9월)에 실린다.

3) E.P. 톰슨 지음/나종일·노서경·김인중·유재건·김경록·한정숙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서울: 창비, 2000), 6쪽.

그리고 중국 피춘 '노동자의 집(工友之家)'에서 활동하고 있는 뤼투(呂途)가 쓴 『중국 신 노동자: 방향 상실에서 굴기까지(中国新工人: 迷失與崛起)』(2013), 『중국 신 노동자: 문화와 운명(中国新工人: 文化與命运)』(2015)⁴⁾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장영석의 「농민공, 중국 계급문제의 지구적 맥락」(『황해문화』 2008년 겨울호)와 장윤미의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현대중국연구』 제14집(2012)) 등이 기왕의 연구를 소개하고 그 위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노동자 집단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본 논문은 농민공의 문제를 탄생시킨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를 놓지 않되, 철저히 시야를 새로운 노동집단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공'의 입장에 집중하기로 한다. 특히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한 '농민공'의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 또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힘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고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바는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사회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농민공'들의 노동자로서의 자각이다. 또 그 자각으로부터 행동의 변화, 연대 투쟁을 이끌어 내고 있는 그들 정신의 힘이다.

2. 이주노동(打工) 30년의 역사: '농민공'에서 '신 노동자'로

다시 한 번 처음의 울림, '우리는 신 노동자입니다!'의 선언으로 되돌아 가보자. '나는 ~이다'라는 선언은 '나는 더 이상 ~이 아니다'라는 부정과 양면을 이루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니다'라는 부정에는 현재 나를 옹아매고 있는 바로 그것을 끊어내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것이 이미 나의 생활과 생각을 구성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부정과 거부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 반복될지 모른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에 대한 각오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 선언은 이 결정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투쟁이다. 그러면 '나는 신 노동자다'라는 선언, 즉 '나는 더 이상 농민공

4) 또 뤼투의 『中国新工人: 女工传记』 역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니더라는 선언이 끊어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선언이 가지는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농민공'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이해해야 하고, '농민공'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민공'의 구체적인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원테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중국 경제를 고찰하면서 좌나 우의 이데올로기적 잣대가 아니라 실제 상황, 경험의 과정에서 출발⁵⁾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은 '농민공'이라는 주제를 토론할 때에도 유효하다.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간 '농민공'이 직면했던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 베이징 피춘 내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 입구에는 "이주노동(打工)·30년·유동의 역사"라는 제목의 도표가 붙어 있다. 이 도표는 자신을 '신 노동자'로 호명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에 대한) 역사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살펴볼 가치가 있다.

'농민공'은 통상 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주노동자 집단을 가리킨다. 그들은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한 호구제도의 조건 아래에서 농촌호구를 보유한 채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 도시호구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거주, 생활, 일 등 거의 모든 방면에 있어 임시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노동은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노동이라는 의미의 '임시노동 打工'으로 격하되었으며, 이들 또한 임시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차별적 의미로) '打工仔', '打工妹', '外来工' 등으로 불리었다.

아래 도표에 따르면, 30여 년의 개혁개방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 '농민공 집단'은 대략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1978년-1988년의 시기로 농민이 거의 맹목적으로 도시로 진입한 시기이다. 이때 '농민공'은 '맹목적인 유입자(盲流)'로 불리며 주로 농한기에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서 임시 노동자로 일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 즉 제조업, 건축노동자,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인구수는 대략 2천만에 이르렀다. 이 때 '맹목적인 유입자'라는 말에는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이 도시의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를 잠식하고, 도시 내에 빈민가를 형성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불법상품 판매, 절도 등 도시의 각종 비리를 만들어내고

5) 원테쿤 지음/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서울: 돌베개, 2013), 63쪽.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⁶⁾ 있었다.



[그림 1] 베이징 피준 내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 입구에 붙어 있는 "이주노동(打工)·30년·유동의 역사" 도표

두 번째 1988년-2002년까지는 이른 바 '이주노동 붐(打工热)'이 중국 전역을 휩쓴 시기로, 이제 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세계의 공장'을 자임한 중국 산업 경제의 상황에서 보자면 대량의 염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농민공' 역시 이를 돈을 벌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이 시기 '농민공'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대략 1억 2천만에 이른다. 이 시기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 정부는 농민의 외부 유동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통제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농민공이 유입되는 도시에서는 '강제소환제도(收容遣送制度)', '임시 거주 신고(暫住身分)' 등의 차별적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소극적 억제책을 썼다.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심지어 휴대만 하지 않아도 경찰에게 즉시 체포되어 농촌으로 소환되거나 감금되었기 때문에⁷⁾, 이는 실제적으로 '농민공'들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제도가 되었다. 세 번째는 2003년부터 2008년에 이르

6) 장영석, 「농민공, 중국 계급문제의 지구적 맥락」, 『황해문화』 2008년 겨울호, 57쪽

7) 이창휘·박민희 엮음, 『중국을 인터뷰하다』(서울: 창비, 2013), 329~330쪽, '쑤형' 인터뷰 중에서.

는 '신 노동자'로 거듭나는 시기로, 공식 통계에 의하면 '농민공'의 인구는 약 2억 4천만에 달하게 되었다. 2003년을 시작점으로 삼는 까닭은 이 해에 그동안 '농민공'의 발을 묶어 놓던 '강제소환' 제도가 폐지⁸⁾되었기 때문이다. 또 2008년부터는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이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주쉐친(朱雪芹), 후샤오옌(胡小燕), 캉허우밍(康厚明) 등 3명의 농민공이 인민대표로서 국가최고권력기관에 진출하였다.⁹⁾ 강제소환제도가 폐지되면서 '농민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시에서 거주 혹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계약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제정·실시됨으로써 '농민공'들은 자신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보장받게 되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농민공'의 생활과 일을 안정화시키는 두 가지 법적 보장이 마련된 것이 이 시기의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심화되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점증하는 노동자 집단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각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집단 사건(群体性事件)들과 권리 보호(维权) 활동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팍스콘 노동자들의 연이은 투신자살 사건, 난하이 파업이 도화선이 되어 파업물결이 중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졌다. 이러한 파업과 투쟁의 소식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공감과 동시에 법제도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소위 '신 노동자'의 시기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과 연대투쟁이 점증한 시기이며, 동시에 임시노동자(打工者)들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와 정책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현실의 변화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벽은 아직 강고하다.

지난 30여 년간 '농민공'이 받은 상해, 차별, 피해의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매우 심각¹⁰⁾하고,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공'이라는 말에는 농촌에

8) 2003년 '쑤즈강 사건'을 계기로 중국 사회에서 강제소환제도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9) 2008년 3인의 농민공이 전국인민대표로 선출된 이후, 2013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수가 31인으로 증가한다.

"从3到31：中国农民工全国人大代表人数大幅提升", 『新华网』 2013. 03. 04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3/04/c_114878972.htm

서 온 이주 노동자(打工者)들의 도시에서의 차별, 배제, 피해의 실제 역사가 각인 되어 있다. 차별과 무시가 '농민공'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었다면,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정서는 무기력이다. 영화 『북경자전거』(2001)에서 '농민공' 구이(貴)는 부당하게 일당이 깎여도, 또 고급 사우나에서 오해가 생겨 비싼 입장료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변변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말해봤자 목살되기 일쑤이다. 짧지 않은 도시 생활 속에서 그가 얻은 교훈이라곤, 선불리 자기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억울하더라도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었다(하루 일당 몇 십 원 깎이는 것이 고향으로 쫓겨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러한 생존 방식에 익숙해진 구이는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몰고 있는 것을 보고도 회사 사람들이나 빼앗아 간 또래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전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심지어 도시 학생들이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전거를 끌어안고 온갖 폭력을 감내하는 것뿐이다. '농민공'인 구이에게 있어 학습된 무기력¹⁰이야말로 도시에서의 차별적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차악(次惡)의 방법이다. 영화 속 '농민공' 구이가 도시에서 마주친 현실과 거기에 대응하는 그의 무기력한 태도는 '농민공'이 직면한 현실과 그 집단적 정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농민공'들은 그렇다고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농촌의 생태계와 공동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2003년 농촌에서 '집체토지청부법'이 시행되어 토지에 대한 촌락공동체의 '집단적 소유권'이 사실상 박탈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인구 변동에 따라 토지의 재분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¹¹이 벌어진다. '80後'등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경작할 수 있는 그들 몫의 땅이 실제로 없어져, 문자 그대로 유동인구가 되었다. 이처럼,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도 또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곤경을 몸으로 견디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력감, 무감각, 방향 상실 등은 '농민공'들을 지배하는 정서¹²가 된다.

10) 알렉산드라 하니 지음/이경식 옮김, 『차이나 프라이스』(서울: 황소자리, 2008)

11) 원테권, 앞의 책, 55-56쪽. 원테권은 2003년 '집체토지청부법'의 실시로 '농민공'이 도시의 노동계급이 될 물질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농민공이 아니다'라는 선택은 이러한 차별적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과거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이다. 도시에서 차별받는 현실, 일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또 연대의 힘으로 바꿔가겠다는 단호한 결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 스스로의 호명인 '신 노동자'에 주목해야 한다.

3. '신 노동자': 새로운 노동자 집단정체성의 형성

1) '신 노동자', 호명의 정치학

주지하다시피,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농촌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농민공', '외래 노동자', '임시 노동자(打工者)' 혹은 '신세대 농민공'¹³⁾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으며, 이 이름에 수반되는 차별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들은 이들이 농촌에서 왔다거나 직업이 임시적이라거나 하는 실제 현상을 특정화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이들을 '신 시민'이나 '신홍계약노동자'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농민공'들에게 있어 '농민공'이라는 호칭의 문제는 그저 지시의 기능을

12) 吕途, 『中国新工人——迷失與崛起』(北京: 法律出版社, 2012), 98~163쪽.

13) '신세대 농민공 新生代农民工'이란 명칭은 2010년 1월 31일 국무원이 발표한 <도농발전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농촌발전의 기초를 진일보 견실하게 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 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에서 처음 보인다. '신세대 농민공'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함께 이 보고서는 이 농민공들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것과 신세대 농민공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시민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신세대 농민공'들은 주로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로, 대개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도시로 오거나 혹은 아예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 세대 '농민공'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전 부모 세대의 '농민공'과는 다르게, ①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연령(16-18세), ②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중고등 졸업)과 직업훈련 수준, ③ '2고1저'(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 건축업의 감소)의 취업업종, ④ 도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황경진, 「중국 신세대농민공(新生代农民工)의 기본 현황과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75~78쪽).

넘어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009년 10월 28일, 베이징 피춘의 '신노동자 극장'에서 개최한 '제2회 신노동자문화예술제'에서 샤오산(小山)이라는 활동가는 이 호명의 문제에 대하여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다.

“여기에서 나는 자기정체성의 문제, 즉 농민공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지식인이나 전문가, 학자에게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서 있고 멀리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이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이 호칭(농민공이라는 말, 역자 주)을 줄곧 배척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이름에 개의하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사실에 속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도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자기정체성은 도덕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략) 저는 예전에 많은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컨테이너에 기거하며 아주 열악한 조건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농민공이니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동일시를 하면, 이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행동자, 하나의 실천자라면, 이 문제는 각별하게 중요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농민공이라고, 노예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¹⁴⁾

이 발언은 '농민공'이라는 호칭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농민공'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곧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예됨을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신에게 마땅한 이름을 되찾아 온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실천이다. 이런 맥락에서, '농민공'이라는 주어진 호명

14) “在這裡，談一下自我認同的問題，關於農民工身份的問題。這個問題對於很多知識分子專家學者，是一個很小的問題他們站得高看的遠，但是對於我們很重要，是一個方向性的問題，會影響到我們的行動。(中略)我們一直排斥這個稱呼。很多人認為我們有病，怎麼會在乎這麼個名字。很多人認為這是個事實。但是這不是我們的事實，因為這個‘事實’忽視了道德。(中略)我以前在很多建築工地做訪談，幾十個人住在一個工棚裡，忍受那麼惡劣的條件，問他們為什麼能忍受的時候，他們說：‘因為我們是農民工啊’。認同了，接受了這個身份。如果我們作為一個行動者，一個實踐者，這個問題就變得特別的重要，加入我們認為我們是農民工，是一個奴隸，那麼我們就喪失了能力。”(呂途， 앞의 책, 3-4쪽.)

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신 노동자'라고 자기호명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지금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신노동자(新工人)'라는 자기호명이자 정체성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지고 공유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베이징 피춘의 '신노동자극장'이 최초로 개최한 예술제가 '제1회임시노동(打工)문화예술제'(2009년1월)였다가 2회는 '신노동자(新工人)문화예술제'(2009년10월)로 바뀐 것을 보면, 2009년 즈음 베이징 피춘에서 이 새로운 노동자들의 자기호명—'농민공'인가 '임시노동자(打工者)'인가, 아니면 '신노동자'인가—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¹⁵⁾이 있었고, 대략 2010년쯤부터 폭넓게 공유되기 시작했으리라 짐작된다.

왜 하필이면 '신 노동자'인가? '노동자(工人)'의 가치와 효용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지 않은가? 쑨형에 의하면 '신 노동자(新工人)'란 호명은 '농민공' 또는 '농촌에서 온 임시노동자(打工者)'라는 말로 차별받던 자신들에게 '노동자(工人)'라는 걸맞은 이름을 되찾아 주되, '신'이라는 말을 더해 사회주의 시기 국유기업의 노동자와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역사적 맥락을 표시¹⁶⁾한 것이다. 이 이름은 특히 최근 중국 사회에서 이미 사라진 '노동자(工人)'를 다시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말로로는 비슷한 노동자라는 의미의 '노동자(工人)'와 '임시노동자(打工者)'는 역사적 맥락에 놓고 볼 때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노동자(工人)'는 사회주의 시기 국유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가리키며, '노동자(打工者)'는 개혁개방 이후의 유동(혹은 부유)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工人)'는 사회적 주체, 역사적 주인공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개혁개방 이후 '노동자(打工者)'는 그저 임시로 고용된 노동인력일 뿐이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工人)'는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인 '단위(单位)'에 의해 보호받았다면, 개혁개방 이후의 '노동자(打工者)'는 사회적·법적 보호 바깥에 있다가 2008년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계약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신 노동자'라는 자기호명은 이주노동자들의 (육체)노동을 긍정하고 그에 걸맞은 '노동자(工人)'라는 이름을 되돌려 주는 동시에,

15) 뤼투, 앞의 책, 2~6쪽.

16) 이창휘·박민희, 앞의 책, 327~330쪽.

포스트 산업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육체노동의 가치를 환기하고 있다. 또한 '신'을 붙임으로써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을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工人)'의 사회적 지위 및 그들이 향유했던 사회보장 시스템과 구별하면서도, 이전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工人)'가 누렸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 노동자'라는 자기호명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어졌던 피동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기호명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쑨형의 고백에 따르면, 몇몇 주위의 노동자(打工者)들이 모여 음반 제작이나 독서회 등 문화 활동을 하면서, 또 스스로를 '신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인생의 가치관과 의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다고 느꼈으며, '더욱 충실해졌으며,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자각¹⁷⁾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쑨형의 이러한 고백은 '신 노동자'라는 자기호명과 이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일시를 하면 그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활동가의 말을 상기하면, 이 '신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신세대 농민공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협력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2) '신 노동자'와 문화공동체 -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¹⁸⁾

쑨형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신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베이징 외곽 피춘(皮村)에 공동체를 하나 꾸린다. 베이징 북동쪽 6환 근처에 있는 피춘은 '농민공' 집단거주구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공식 기록에 의하면 2003년 이후부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쑨형 및 그의 친구들은 이 피춘의 중심에

17) 吕途, 『中国新工人——文化與命运』(北京:法律出版社, 2014), 288~289쪽.

18) 이하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소개는 필자의 방문과 인터뷰, 위투의 『中国新工人——文化與命运』(北京:法律出版社, 2014) 중 12장 '쑨형의 이야기(孙恒的故事)' 부분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노동자의 집'이라는 신노동자 공동체 센터를 마련하였는데, 이 공동체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먼저, 이들 노동자로서의 공동체 활동은 처음부터 시(詩), 노래, 연극, 교육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매개되고 있으며, 이 활동은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둘째, 다른 민간 조직이 외부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스스로 공동체 운영 기금을 마련하여 자생적·자립적인 연대, 공존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의 경우, 그 기원은 쑨형 및 그의 친구들이 2002년 조직했던 '노동자 청년문화 서비스 센터(打工青年文化服務社)'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농민공 민간 조직인 '여성 농민공의 집(打工妹之家)'에서 힌트를 얻어 조직한 것인데, 2002년 11월 '농민의 집(農友之家, 이후 2006년 '노동자의 집(工友之家)'으로 개칭)으로 민간조직으로서 정식 등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간조직으로 정식 등록했다고는 하지만 초창기에는 주로 독서, 공부, 노래 등을 하는 스터디 모임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2002년 말, 공사장에서 하는 콘서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일정한 찬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후원이 조금씩 늘면서 활동의 영역 역시 교육, 음반제작 등으로 넓혀가게 되었다. 특히, 2004년 제작한 '전 세계 노동자는 한 가족(天下打工是一家)' 음반이 7만 4천 위안(元)의 저작권 수입을 거두면서, 이 수익으로 피춘의 폐교를 얻어 '통실험학교(同心實驗學校)'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꾸리게 되었다. 이때가 2005년 8월 21일이었다.

이후 점점 공동체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대학(工人大學)', 재활용품 거래 시장인 '통신재활용상점(同心互惠商店)'(2006), 신 노동자들의 삶과 일을 기록하는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2008), 기술과 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통신창업훈련센터(同心創業培訓中心)'(2009), 유기농 농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농원(同心農園)'(2012), '통신꼬문캠프(同心公社營地)'(2016) 등을 설립, 운영하는 등 꾸준히 기구를 확장하여 왔다.

통실험학교 및 노동자대학

쑨형을 주축으로 한 '노동자의 집' 구성원들은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의 교육에 대해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다. 2002년 처음 '農友之家'라는 커뮤니티 간판을 내걸었을 때도 중고 컴퓨터를 후원받아 이주노동자들의 컴퓨터 기술 습득에 힘썼다. 또 피춘으로 옮겨 가장 처음 만든 기구 역시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초등교육을 위한 학교였다. 이후 이들의 교육활동은 '노동자 대학'과 '통신창업훈련센터'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중고등 과정, 기술훈련, 노동법교육, 문화예술, 사회사업 등을 교육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을 위한 실제 지식 습득을 위한 중고등 교육과 기술훈련, 노동법 교육 외에, 사회사업을 정식 교육 과목으로 하여 신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스스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다른 활동보다 교육, 특히 초등 교육에 먼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자립'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립'의 원칙은 교육자의 재생산에서도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춘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중국 내외의 대학생이나 지식인, 액티비스트 등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며 신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행동이 주가 된다.

신노동자문화예술단(新工人文化藝術團)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나 신노동자들은 생활공동체 혹은 노동공동체라기보다는, 문화 활동을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시를 짓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극이나 노래 등 공연을 하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보다 나은 삶을 꾸리며 연대를 실천한다. '노동자의 집'의 많은 활동 중 '신노동자문화예술단'의 다음 네 가지 활동은 특히나 중요하다. 첫째 2004년 첫 번째 음반 '전 세계 노동자는 한 가족'의 제작, 둘째 2009년 노동자문화예술제(打工文化藝術節) 개최, 셋째 2010년 팍스콘 노동자 추도회 개최, 2012년 노동자춘절문화제(打工春節晚會) 주최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4년 출시된 첫 번째 음반의 수익금으로 피춘에 통신실험 학교를 세우며 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반은 지금까지 1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피춘 신노동자문화예술단의

영향력을 과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시작된 노동자문화예술제는 철저하게 노동자를 위한 전국적이고 규모 있는 예술제로, 2009년 시작된 이후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이 예술제는 '내가 만들고 내가 공연', '노동자 문화의 건립', '노동문화의 건립'을 목표로 하여, 전국의 각종 노동자 단체가 참여하여 각종 공연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와 생각을 스스로가 기획한 예술 형식-음악회, 영화, 연극, 시낭송회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공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0년에 발생한 팍스콘 노동자 자살 사건은 중국의 극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생명으로써 저항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를 통해서만 글로벌 기업과 정부 측의 노동자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전가의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에서는 자발적으로 '팍스콘 노동자 추도회'를 개최하였고, 몇몇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전체 녹화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파는 할 수 없게 되어, 이접게도 지금으로서는 그 생생한 감정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의 여러 예술제에 비하여 2010년의 팍스콘 노동자 추도회는 자본과 정부의 압박 아래에서 치러진 만큼 뚜렷한 계급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춘절연회'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CCTV의 '춘절연회(春節晚會)'를 패러디한 예술제이다. 이 역시 신노동자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공연하는 신노동자를 위한 춘절연회이다. 특이한 것은, 2012년 첫 회부터 지금까지 CCTV의 유명 앵커 추이용위안(崔永元)과 신노동자 1인이 공동 진행을 맡고, 이를 현장 공연과 동시에 텐센트(騰訊網)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 물론, 추이용위안이 개인의 자격으로 노동자춘절연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우연의 힘이지만, 그의 참여로 인하여 노동자춘절연회와 주류 매체와의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 중계는 첫 회 업로드 3일 만에 5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강렬한 호응이 감지된다. 이로써, 노동자춘절연회는 신노동자의 문화예술활동이 주류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와의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통신재활용상점 및 통신농원

규모가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특히 NGO를 운영할 때 기금의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동자의 집' 역시 처음에는 마음 좋은 후원자의 후원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점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6년 처음으로 마구 버려지는 소비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통신재활용상점'을 개설하여, 2016년 현재 전국에 15개 지점으로 확장하였다. 2014년 집계에 의하면, 통신재활용상점을 통해서만 약 30만 위안의 이윤을 거두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베이징 외곽 창핑(昌平)에 땅을 마련하여 '통신농원'을 꾸리고 있다. 이 농원에서 유기농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거두는 수익으로 '노동자의 집' 전체를 운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수익 사업은 무엇보다도 신노동자와 그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익의 창출만큼 염두에 두는 것은 사업 방식의 윤리성이다. 즉, 통신재활용상점과 통신농원을 통해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비판적이지 않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 활동을 통하여 정부나 펀드의 보조와 후원에 대한 종속에 대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자본주의 착취 모델에 대한 거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

피춘 '노동자의 집' 마당을 들어서면 바로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打工文化藝術博物館)'의 간판이 보인다. 이 박물관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유일한 '농민공'을 위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문화예술박물관은 2008년 5월 1일 쑨형 및 그의 친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쑨형은 이 박물관의 설립에 대해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고, 중국에는 천지개벽 할 만큼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주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엘리트와 자본의 담론만 들을 수 있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우리 이 박물관은 보통 노동자의 생활과 일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 발전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의 역사는 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¹⁹⁾이라 취지를 밝혔다. 박물관은 '보통 노동자의 생활과 일을 기록'하기 위해, '농민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임시거주증, 작업복, 산업재해의 현장 등 개혁개방의 빛나는 성과에 가려진 피착취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가족사진', '남이있는 아동(留守兒童)', 파괴된 농촌과 도시 변두리의 현장 등 '농민공'의 현주소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과 시위의 생생한 현장을 옮겨오고 있다.

'신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응집력으로 하여 '농민공'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록과 전시를 통해 '농민공', 즉 신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역사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절에서 언급한 '이주노동 30년 유동의 역사' 도표가 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노동자의 단계를 2003년 이후부터 포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했듯, '농민공'과 '신노동자'의 호칭을 둘러싼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2009년의 일이므로, '신노동자'의 단계를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신노동자'의 정체성이라는 맥락에서의 전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유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 서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신노동자'의 역사 서술은 2003년 쑤즈강 사건 이후로 더욱 거세어진 사회적 저항을 반영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후 더욱 분명한 '농민공'들의 산발적이거나 집단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신노동자' 자신의 역사 안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 신노동자』의 저자 뤼투는 2008년 이후로 더욱 집중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각종 권리보호(維權) 운동²⁰⁾뿐만 아니라, 2003년을 전후로 한 '노동자 부족 현상(民工荒)' 역시 노동자 파업의 한 형식으로 간주한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 노동력 부족 현상의 근본 원인은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및

19) 吕途, 『中国新工人——迷失與崛起』(北京: 法律出版社, 2013)

20) 홍콩에 위치한 중국노동통신(中国劳工通讯, China Labour Bulletin)이 발행하는 『중국노동회보』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노동자의 집단행동은 2011년 총 185건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382건, 2013년 656건, 2014년 1379건, 2015년 2775건, 2016년 2308건(2016.12.24. 현재)을 기록하였다. (<http://maps.clb.org.hk/strikes/zh-cn#>)

대우 및 노동자 권익의 부족 등²¹⁾이지만, 이 외에도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이 일이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등의 이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일을 통한 자아실현, 도덕 및 양심의 명령 역시 이직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고²²⁾, 이러한 지속적 이직은 기업 측의 곤란으로 이어져 노동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워투는 이를 노동자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부른다. 이처럼 '노동자 문화예술박물관'은 지난 30여 년 '농민공'들의 피착취의 역사를 전시하는 동시에, '신노동자'들이 서서히 스스로의 힘을 얻어가는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 구성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노라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노동자 문화와 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자립을 꾀하고 자신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며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공동체 운영을 위해 외부 기금이나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의 생산 활동이 윤리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신 노동자' 집단정체성의 의의 및 가능성

지금까지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의 활동을 개별 사례로 하여, '신 노동자' 선언 및 이를 응집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활동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 전체의 과정은 노동자로서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형성'이라는 말로써 '신 노동자'의 집단정체성이 일회적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21) 吕途, 앞의 책, 229~230쪽.

22) 吕途, 앞의 책, 18~27쪽, 225~247쪽.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집단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중국의 각성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도시인으로서,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넘어 차별받아왔던 노동자집단을 위한 '인정투쟁'과 '존엄의 정치'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하기 위해 '노동'의 가치를 재천명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노동'의 재천명에는 이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가족의 생활, 문화, 정신적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행위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세기 이후 '포스트 산업사회'를 맞으면서 노동이 더 이상 생산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로 빠르게 '노동자 계급의 쇠락'을 경험²³⁾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신 노동자'들의 '노동이 신성하다'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들의 집단정체성 및 기능성의 실험은 더욱 귀중해 보인다.

필자가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나는 신 노동자입니다!'의 당당함과 단호함은 이러한 '신 노동자'의 승리와 해방의 기억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 짐작한다. 물론, '저항', '투쟁', '승리', '해방' 이런 말들은 지금 현재 중국의 임시노동자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을 포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관적이고 무력한 현실을 돌파했던 기억이며, 따라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상상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수많은 유인원들 중에 유일하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언어를 통한 상상력의 힘이었다고 호소력 있게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상상력의 힘으로 사회를 이루고, 상상력의 힘으로 다른 집단을 능가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형성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를 통해 하나의 가능한 미래를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피엔스의 우월한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23) 왕후이, 앞의 논문. 특히 중국 '농민공'과 그들의 생산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개혁개방 이후 빠른 노동자 계급의 쇠락과 궤를 같이 한다고 왕후이는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농민공' 및 그들의 생산 노동에 대한 차별, 배제 등은 '농민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지위 및 전체 생산 노동의 가치 쇠락과 연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볼 때, 피춘 '노동자의 집' 새로운 노동자집단의 많은 활동이 음악, 시,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로 매개되어 있다는 점은 각별하게 중요해진다.(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해 보이는 '신 노동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미래를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국의 내일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의 내일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뤼투의 제언을 빌리자면, "중국 신 노동자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며, 또한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²⁴⁾

그렇다면 '신 노동자의 집단정체성이, 이들의 문화 활동이, 이들의 미래기획이 여전히 암담하기만 한 현실을 변혁할 수 있을까?²⁵⁾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성급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가능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치적 주체로, 정치적 계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언(苦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왕후이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항의 속에서, 이 집단(신 노동자 집단을 가리킴)에서 현재 나날이 활발한 집단의식이 싹트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계급을 형성하지 못했다²⁶⁾고 진단한다. 왕후이에 따르면, 개혁개방의 시대, '세계의 공장' 중국은 자본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노동을 소환했고, 이러한 급속한 시장화의 과정에서 계

24) 吕途의 제사(題詞), "中国新工人的未来决定中国的未来, 也影响着世界的命运"

25) 이 글을 마무리 할 때 쫓인 2016년 12월,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이 현지 촌위원회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며 이미 전기가 끊어진지 오래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www.mzfxw.com/e/action/ShowInfo.php?classid=15&id=77919>).

기사에 따르면, 피춘 '노동자의 집'과 건물주 사이의 계약이 2019년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촌위원회는 건물주에게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집'을 철거시키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2016년 10월 18일부터 전기가 끊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노동자의 집'의 저항은 물론 원테켄 등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성토가 잇따랐으며, 촌 위원회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3일 끊었던 전기를 회복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해 보인다. 하지만, '노동자의 집'과 촌 위원회 사이의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또 다른 양상의 문제를 노정한다. '노동자의 집'과 같은 노동자 권익을 위한 NGO의 활동이 자본,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등 거대 권력과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하층(基层) 민중 사이에서 역시 격렬한 이익 충돌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温铁军, "工友之家被拆迁与基层债务的"成本转嫁")

26) 왕후이, 앞의 글.

급관계가 재구성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급속한 계급관계의 재구성 속에서 오히려 계급담론이 소멸되는 운명을 맞았는데, 그가 말하는 '계급담론의 소멸'은 계급관계 혹은 계급분화의 소멸이 아니라, 계급정치의 약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노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시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적 시야에서 신 노동자 집단의 정체성 및 그들의 투쟁을 보면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엄밀한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신 노동자의 소박한 집단의식이 혁명을 추동시켰던 20세기의 '계급의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이들의 정체성이나 활동에서 뚜렷한 자기의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정치적 역량이나 혹은 정치적 계급으로 상승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신 노동자'에게서는 이러한 계급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둘째, 신 노동자들과 다른 계급 사이에 정치적인 상호 작용이 거의 없다. 특히 지난 세기 빈민인 노동자 계급과 자신의 계급을 저버린 유민(流民)의 결합이 사회적 변혁을 이끌었던 역사를 상기할 때, 각성한 노동자인 '신 노동자'와 소위 '뉴 푸어' 사이에 그 어떤 상호 작용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은 더욱 신 노동자 집단의 정치화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셋째, 신 노동자 집단 자체에는 정치적 목소리가 거의 없다. 물론, 이것은 이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80년대 이후 계급관계 재구성의 산물이기도 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후이는 노동조합의 구성, 신 노동자의 정치영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중국공산당 각급 대표 기구 등)으로의 진입, '노동자 계급이 곧 국가의 영도 계급'이라는 헌법 원칙의 회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왕후이의 지적은 '신 노동자' 집단정체성의 한계를 지적한다기 보다 '신 노동자' 집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신노동자의 자기호명이 결국 포스트산업사회에 노동의 가치를 재천명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이 결국 자본주의의 착취 메커니즘을 거부하는 것에 이르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노동자 문화와 노동 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에 이르렀던 경험을 총괄할 때, 그 안에 (정치적) 저항의 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본주의, 국가권

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권력에 대해,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무기력에 대해 결연히 대항하는 정신의 힘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신노동자들이 정치적 계급으로 각성하느냐에 있다기 보다, 이러한 저항의 힘을 사회적·정치적 변혁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사회가 성숙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의 '신노동자예술극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곡조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노래²⁷⁾를 부른다든지, 피춘의 대표적 활동가 뤼투가 한국의 노동운동가 전태일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한 고백²⁸⁾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본다. 중국 '신 노동자'의 미래 어디쯤에서 1970-8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參考文獻〉

- 악셀 호네프 지음/문성훈·이헌재 옮김, 『인정투쟁』(서울: 2011).
 알렉산드라 하니 지음/이경식 옮김, 『차이나 프라이스』(서울: 황소자리, 2008).
 안산핑 지음/백계문 역, 『중국 도시화와 농민공』(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5).
 원테켄 지음/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서울: 들베개, 2013).
 유발 하라리 지음/조현욱 옮김, 『사피엔스』(서울: 김영사, 2015).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관계』(서울: 나남, 2001).
 이창휘·박민희 엮음, 『중국을 인터뷰하다』(서울: 창비, 2013).
 장 보드리야르 지음/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서울: 문예출판사, 2002).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서울: 천지인, 2004).
 카를 만하임 지음/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서울: 책세상, 2013).
 홍태영 지음, 『정체성의 정치학』(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E. P. 톰슨 지음/나종일 등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김경환, 이중희, 「중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민공황(民工荒)과 농민공 회류(回流)의 원인분석과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12.

27) “깨어나는 중국 농민공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 『한겨레』 2012년 1월 2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13088.html>

28) 서울대학교 SNU in Beijing <현대중국의 이해> 2016년 7월 18일 뤼투의 강연 중에서

- 김중현, 「농민공 도시 정착의 문제와 한계」, 『중국학연구』 제62집, 2012.12.
- 김도경, 「도시 후커우를 원하지 않는 농민공」,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 장영석, 「농민공, 중국 계급문제의 지구적 맥락」, 『황해문화』 2008년 겨울호.
- 장영석,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의 계급 형성 - 난하이 혼다자동차 파업 분석」, 『동아시아브리프』, 2010.
- 장윤미,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연구』 제14집(2012).
- 뤼신위 저/김혜주 역, 「농민공 조류(民工潮)라는 문제의식」, 『문화과학』 2012.6.
- 왕후이/박자영 옮김, 「두 종류의 신빈민과 그들의 미래: 계급 정치의 쇠락과 재형성, 신빈민의 존엄의 정치」, 『문화과학』 83호, 2015.9.
- 황경진, 「중국 신세대농민공(新生代农民工)의 기본 현황과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 蔡和平 저/태충남 역, 「중국의 農民工 권익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9집, 2006.6.
- 황경진, 「2011년도 중국 농민공 취업실태: 2011년도 중국농민공 조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6월호.
- KIEP 북경사무소, 「2011년 중국 농민공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4, No. 16(2012년 10월 12일).
- 김수한, 유다형, 「중국 농민공 현황 및 특징 - 『2015 전국농민공모니터링 조사』 분석 -」, 『INChinaBrief』 vol.316, 2016.6.7.
- 黄宗智, 「重新认识中国劳动人民——劳动法规的历史演变與当前的非正规经济」, 『开放时代』 2013年第5期.
- 吕途, 『中国新工人——迷失與崛起』, 北京:法律出版社, 2012.
- 吕途, 『中国新工人——文化與命运』, 北京:法律出版社, 2014.
- 潘毅著/任焰译, 『中国女工——新型打工者主体的形成』, 北京:九州出版社, 2011.
- 汪晖 陈燕谷主编, 『文化與公共性』, 北京:三联书店, 2005.
- 汪晖, 「我有自己的名字 - 『中国新工人——迷失與崛起』序言」.
- 汪晖, 「两种新穷人及其未来——阶级政治的衰落, 再形成與新穷人的尊严政治」, 『开放时代』, 2014년 第6期(<http://www.opentimes.cn/bencandy.php?fid=378&aid=1849>).
- 张居永, 「新生代农民工生存状况與心理状况的调查與思考——基于珠三角地区767个调查样本的数据分析」, 『岭南学刊』, 2012(1).
- 黄典林, 「从“盲流”到“新工人阶级”——近三十年《人民日报》新闻话语对农民工群体的意识形

态重构」, 『现代传播(中国传媒大学学报)』 2013年09期.

인터넷 자료

“人大代表胡小燕: 农民工想被城市认可需提升技能”, <http://news.cntv.cn/china/20120310/106610.shtml>

尹蔚民: 劳动力供大于求 中国人口红利期长期仍存, <http://www.chinanews.com/cj/2011/03-21/2918272.shtml>

“求解民工荒的真相”, <http://finance.sina.com.cn/g/20100315/15127567237.shtml>

Han, Dongfang, “분노한 중국 노동자, 노조에서 길을 찾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73호, 2014년 9월(<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4>)

루 에스파르길리에르 & 테르 모네, “민공(민공), 중국경제 성장 둔화의 희생자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98호, 2016년 10월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7>)

중국노동회보 <http://www.clb.org.hk/>

温铁军, “工友之家被逼迁与基层债务的“成本转嫁”, 观察者网, http://www.guancha.cn/WenTieJun/2016_12_28_386540.shtml, 2017.2.14. 검색.

영화 자료

王小帅, 『북경자전거』(2001)

贾樟柯, 『天注定』(2013)

〈Abstract〉

Cultu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Formation
of Chinese 'New Worker' Group Identity
- Focusing on 'Workers' House(工友之家)' in Picun, Beijing

Jung Soo, Kim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the new worker group identity shown in some 'migrant worker' groups in China in recent years. It first rejects 'migrant workers', the given identity and gives themselves the identity of a 'new worker(新工人)'. This 'new worker' is a self-calling made for the 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the work (especially manual labor) and life of the 'new worker' group as they are, and furthermore for a constructive new identity. The identity of this 'new worker' is distinguished from the social status of the worker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socialist era by attaching the word 'new' and reemphasizes the meaning and value of labor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with the word 'labor'. The identity of this 'new worker' is not just a one-time declaration, but a cohesive force that proposes a new cultural arts and lifestyle.

This paper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the 'Workers' House' established in Picun, Beijing(北京皮村). Starting with the first music, poetry and reading activities, an elementary school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Tongxin shiyan xuexiao 同心实验学校) and college for migrant workers (Gongren daxue 工人大学) were founded with the profits of album sales and a cultural arts group that can express their own voice (Xingongren wenhua yishutuan 新工人文化艺术团) and museum containing the history of migrant workers (Dagong wenhua yishu bowuguan 打工文化艺术博物馆) were founded. In addition, through the profit activities such as recycling shops (Tongxin huhui shangdian 同心互惠商店) and farms (Tongxin nongyuan 同心农园), the self-reliance of worker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are being planned.

The identity of 'new worker'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venue for gathering the capacity of a new worker group. In addition, the possibilities are still open in that

it continues to experiment for independence, solidarity and solidarity of workers through various forms.

Key Words: Xin-gongren, Gongyouzhijia(工友之家), cultural community center, nongmingong

이 논문은 2017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